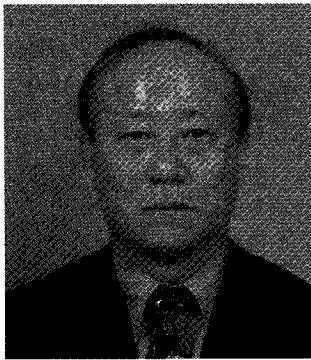


정도경영과 한우물을 파는 장인정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메이커로 성장 예고



▶ 김치상 대표이사

“신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어떤 위기상황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3년, 국내 최초로 수축라벨 기술을 도입한 (주)현대산업의 김치상 사장은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지만 현대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창업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없이 꾸준한 성장을 해 오고 있는 (주)현대산업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체이다.

(주)현대산업은 PVC수축라벨을 주로 생산하는 라벨 전문 생산업체로 이 부문에서는 명실공히 동종업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으며 17년 전통의 노하우를 자랑한다.

83년 설립 후 선발업체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후발 경쟁업체의 덤핑공격에도 ‘가격이 아닌 품질

로서 올바른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 아래 부당한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제품경쟁력 확보야 말로 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키포인트라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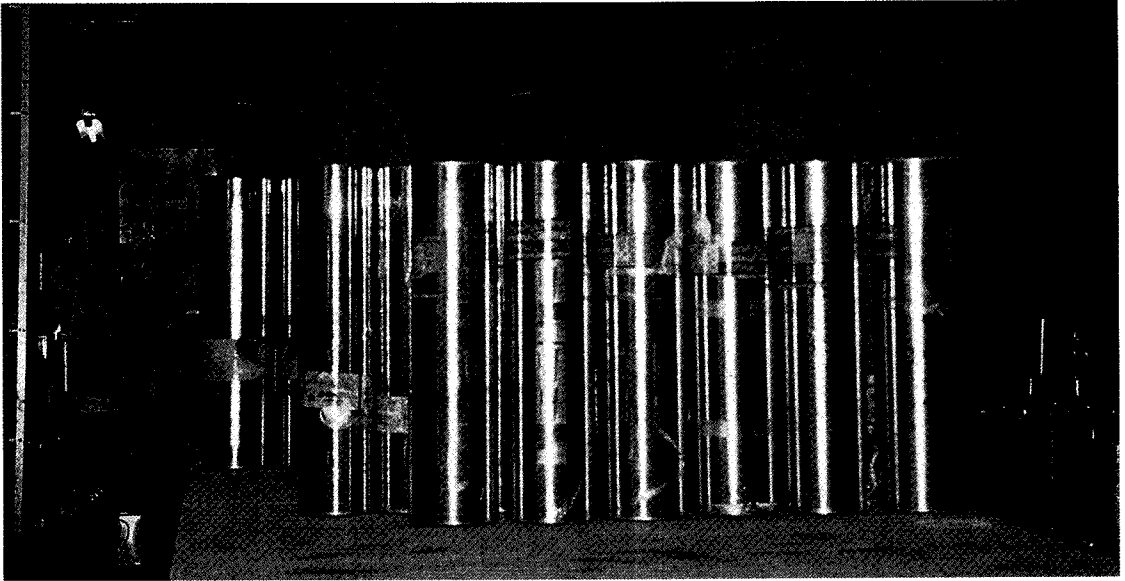
(주)현대산업을 설립하기 이전 삼화통상(주)의 대표이사였던 김 사장은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수집을 꾸준히 지속해 오던 중 ‘요세이 플라 스틱’ 에서 가공기계와 노하우를 도입한다. 그 후 일본에서 원단필름을 수입해 오다가 삼성화성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필름을 완성하면서 이 분야의 선구자가 된다.

그 결과 (주)현대산업은 기존의 종이라벨의 불편함을 PVC수축라벨로 대체하면서 형태변화 보호와 광택효과로 미적 기능을 증대시켜 상품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 국내 라벨업계의 새바람을 일으켰다.

생산품목의 90%가 PVC수축라벨인 현대산업은 한때 OPP품목도 수출했으나 현재는 100% 라벨전문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생산 중인 유니라벨의 특징으로 첫째, 봉합성이 우수하므로 용기에 잘 밀착되어 내용물의 바뀜이나 뚜껑의 결함 등으로 인한 내용물의 유출방지와 예방이 가능하다.

둘째, 열수축성임에 가열만으로 변형된 곳에도



▲ (주)현대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라벨 동판

밀착이 잘 되어 먼지 또는 불순물의 방지는 물론 물에 젖어도 벗겨지지 않는다.

셋째, 내용물의 표시사항 CAP-SEAL의 하부에 내용물을 표시함으로 상부를 절취한 후라도 내용물 표시가 최후까지 남아 있으므로 내용물의 오인을 방지하고 용량이나 품질의 표시가 될 수 있다.

넷째, 아름다운 색상과 다색인쇄로 제품가치를 높인다.

다섯째, 목적용도에 따라 좋은 위치부터 간단히 개봉할 수 있다.

여섯째, 용기의 디자인 밸런스를 조정한다는 것으로 용기의 전체적 균형을 충분히 참작하여 CAP-SEAL의 규격, 색상, 문자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용기의 형태를 조정, 제품의 얼굴로서 광고효과를 높인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업이 시장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면 치열한 기업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주)현대산업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소량주문생산 등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와 함께 매출의 25%에 불과한 수출비용을 높임으로써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에는 고객 니즈에 적합한 생산성과 이를 토대로 한 높은 신뢰도가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정도경영과 한우물을 파는 장인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제품, 올바른 경영을 하는 것”이라며 “인재양성과 의욕적인 개발투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자신의 경영철



학을 설명하는 김 사장은 그러나 말보다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모한 투자를 배제하고 발전적인 방향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한눈 팔지 않고 외길을 걸어온 저력으로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것이다.

‘근면성실·참여생산·인화단결’이라는 사훈으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회사,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회사, 무엇보다 작지만 내실있는 회사를 만들어 사원들의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김 사장의 경영방침이자 소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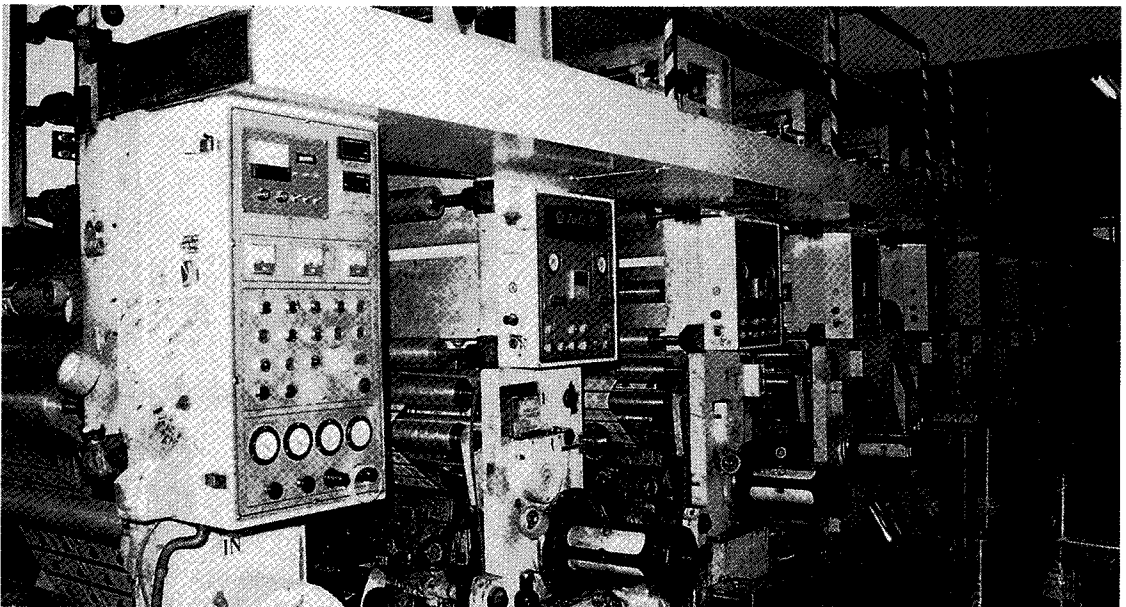
건실한 기업, 내실있는 기업은 기업인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책임감과 성실, 근면성을 지닌 김 사장을 선두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전문화된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경영혁신에 동참

해 새로운 수요창출에 밤낮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거래처와 장기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생산자의 태도에서 품질의 고급화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검사요원들의 엄격한 품질검사 노하우로 인하여 경쟁사보다 월등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납기일을 어기지 않는 철저한 신용으로 구매자들을 만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어려울수록 도태되어서는 안됩니다. 더욱 앞서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지요”라며 불황기에도 강도 높은 마케팅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마이너스 성장없이 건실한 기업을 이끈 김 사장은 작은 실수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크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왔다.

환경부가 다이옥신 검출을 이유로 2001년부터



▲ 고품질의 라벨을 인쇄하는 그라비아 인쇄기



▲ 제품용기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현대의 PVC수축라벨

PVC 사용금지키로 한 정책에 관해서도 “PVC라벨과 동등한 가격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며 “현재는 가격이 2,3배 높아 자재원 가부담이 발생하나 금년 중에 사용가치가 있는 제품이 나오리라 기대하며 현대산업이 그 뒷받침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현대산업은 여타 중소기업과는 달리 자금 조달 및 운용, 인력관리, 품질관리 그리고 목표관리에 이르기까지 경영전반에 걸쳐 앞서가고 있다. 외부차입비용도 거의 없어 중소기업 자금난의 만성원인이 되는 금융비용 부담도 일찌감치 해소했다.

김 사장이 현장에서 쌓은 실무를 바탕으로 철저한 분석력, 기획력, 추진력으로 내실있는 경영을 한 결과 (주)현대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킨 것이다. 임직원들도 한눈 팔지 않고 회사발전을 위해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동종업계에서는 모범되고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의 피땀어린 노력과 열정이 2000년대에는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PVC 수축라벨 메이커로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

이같은 계획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산업의 저력과 김 사장의 추진력을 감안하면 결코 바램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김 사장의 자신감에서 현대산업의 환한 미래를 보는 듯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

최가연 기자